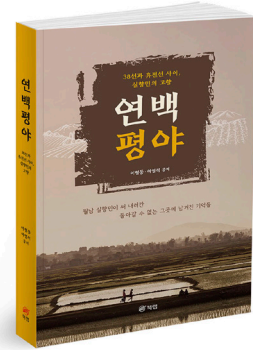


38선과 휴전선 사이, 실향민의 고향

## 연백평야



북랩 | 이형동, 이영석 | 15,800원 | 334쪽

해도 예성강 서쪽에서 해주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들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곳의 이름, 연백평야

월남 실향민이 써 내려간 일제 강점기, 전쟁과 분단  
한민족의 역사가 담긴 생애의 기록

할아버지의 고향은 북한, 할머니의 고향은 일본, 아버지는 부산, 어머니는 대구, 큰아이는 서울, 동생은 광주, 우리 가족은 모두 각기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 우리 민족 수난의 역사, 그 흔적이 우리의 핏속에 흐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실향민이다. 고향에 기도 고향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되었다. 흔적이 빠르게 사라져 버리는 세상이다. 그러나 가족 중에는 진정으로 고향에 갈 수가 없어 꿈속에서만 고향을 느낄 수 있었던 한 분이 계셨다. 그분이 남긴 기록이 이 책의 고향이다. 기억의 정리에서 출발한 사실의 전달이다. 한반도의 소수자엔 이산가족이 있고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 서울 집중과 주거 불평등, 재난 사회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공간민주화'로 나아가라!

건축학자이자 도시공학 박사 이영석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대 인류사를 지배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 곳곳의 전쟁, 무질서한 국제경제, 그리고 기후 위기는 '재난의 국제화(Globalization of Hazard)'라는 불안한 시대를 보여준다. 그러나 2024년 말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주도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은 새로운 정치적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에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3핵이 있다. 첫째, 북한 핵의 위협. 둘째, 인구 감소의 핵-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셋째, 서울 1핵(극) 집중의 국토 전략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의 공간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공간민주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시한다. 공간민주화는 단순한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는 환경권이자 사회권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공간의 민주화가 실현된다는 관점 아래 저자는 도시 공간과 국가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은 집이 없어서, 지방은 집이 남아서 난리다. 부의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가 집이다.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목적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에 '주거권 보장'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말처럼 집은 인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간은 물리적 영역이면서 인간 문명의 그릇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가치 속에서 구축되어 왔으나 근대화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이 가치는 어느덧 빛바래고 말았다. 저자는 이제 부와 권력의 상징을 벗어나 공간을 공동체적 합의와 포용의 결과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민주화』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용산 시대의 공간정책, 재개발·부동산 정책, 그리고 계엄령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을 통해 국가 공간의 민주적 전환이 왜 필요한지 고찰한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을 특정 계층의 복지가 아닌, 다양한 소득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복지로 확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건축은 문화의 상징이며, 도시는 역사의 표상이다. 때문에 이 책은 공간정책의 비합리성을 넘어 우리가 잃어버린 공존의 공간을 되찾고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로 나아가기 위한 사유의 기록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민주적 삶의 터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간민주화』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바람이 될 것이다.



값 22,000원  
ISBN 979-11-7224-961-8 03540

www.book.co.kr

# 공간민주화

도시의 불평등에  
공존의 길을 묻다

이영석 지음



도시의 불평등을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

# 공간민주화

도시의 농부들에게

청와대 이전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도시를 통해 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

이 책은 묻는다.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이영석 지음



이영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동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  
이자 (前)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일본 도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미국 테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객원교수, 국토해양부 주거환경자문위원,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을 맡았다.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저서 『주거환경계획』,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도시경제와 산업 살리기』, 『연백평야 외 다수』 외에도 칼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소통이나 안보냐(한겨레)」, 「서울 집중의 역설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무등일보)」이 있다. 블로그 '집으로 가는 길'을 운영하고 있다.

